



국내 주요 게임기업들이 업계 최대 성수기인 겨울 시즌을 앞두고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부터 리듬액션까지 다양한 장르의 PC온라인게임을 선보이고 있다. 골프게임 '온그린'과 리듬액션게임 '캐스팅온라인', MMORPG '반 온라인2', '플라곤'(맨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겨울시즌, 신작 PC온라인게임 봇물

게임업계, 겨울방학 시장 선점 전쟁

골프게임 '온그린' 사전 공개서비스 실시
'캐스팅온라인' 리듬게임 콘텐츠 차별화
'플라곤' '반온라인2' MMORPG도 가세

겨울시즌을 겨냥한 새로운 PC온라인게임들이 속속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견게임기업들은 최근 다양한 PC온라인게임의 공개서비스를 시작했다. 업계 최대 성수기인 겨울방학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이다. 특히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과 스포츠는 물론 리듬액션까지 다채로운 장르의 신작 PC온라인게임들이 사용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골프부터 오디션게임까지

네오위즈게임즈는 온라인 골프게임 '온그린'의 사전 공개서비스를 내달 2일까지 진행한다. 결과를 본 뒤 공개서비스도 곧 시작할 방침이다.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스크린골프의 노하우를 잘 담아냈다는 점이다. 개발사인 골프존엔터테인먼트는 스크린골프 업체 골프존의 게임사업부가 분사해 만들어진

회사. 이 회사의 첫 번째 개발 게임인 온그린은 그래픽과 물리효과가 뛰어난 '크라이엔진3'를 사용해 제작했다. 여기에 골퍼의 스윙 자세와 속도, 두 발의 위치 등을 판단하는 센서기술과 공의 궤적과 샷의 속성을 잘 구현한 골프존의 스크린골프 물리 노하우를 그대로 녹여냈다. 그밖에 나만의 캐릭터 성장과 미션 수행, 아이템 보상 등 게임 자체의 재미도 뛰어나다. 네오위즈게임즈는 8월 진행한 1차 테스트에서 나온 게이머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된 퍼팅과 랜딩 시스템, 스크린골프와 동일한 구성의 사용자환경(UI) 등을 새롭게 선보이는 등 한층 발전된 콘텐츠를 선보였다.

와이디온라인은 신개념 리듬액션 게임 '캐스팅온라인'의 공개서비스를 24일 시작했다. 가상의 공간에서 캐릭터를 키워 아이돌로 성장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듬게임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색감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My MP3 모드', '캐릭터 육성 시스템' 등 기존 리듬게임과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담아냈다는 점도 게이머들의 관심사다.

●인기 장르 MMORPG도 동성

인기 장르인 MMORPG 신작들도 겨울시장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

웹젠은 28일 신작 PC온라인게임 '플라곤'의 정식서비스를 시작했다. 길드(게임 내 모임)의 성장을 중심으로 자신의 캐릭터를 키우고, 이를 통해 얻은 각종 재화들을 거래할 수 있는 자유도 높은 경제시스템을 주요 콘텐츠로 한 MMORPG다. 유저는 게임 내에서는 물론 웹상에서도 게임머니를 사용해 아이템을 사고 팔 수 있고, 길드의 영향력에 따라 가치가 변하는 '길드 주식'도 거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개인간 전투(PvP)에 공성대전 액션(AOS)방식의 시스템을 적용해 유저들끼리 협력전투를 펼치는 등 전략·전술적 묘미가 뛰어나다. 정식 서비스 초기엔 총 10개의 캐릭터와 7종의 무기를 만나 볼 수 있다.

드래곤플라이는 '반 온라인2'의 정식서비스를 23일 시작했다. 서비스 중인 MMORPG '반 온라인'의 정식 후속작이다. 전작에서 호평 받은 게임아이템의 '반값'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콘텐츠는 두 배 이상 크게 늘린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목욕'과 '댄스', '퀴즈' 같은 몬스터 사냥 이외의 경험치 획득 시스템을 강화해 캐릭터 육성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한 것이 눈에 띄는 점이다.

김영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1년간 찍은 사진, 5분만에 앨범으로 완성

한국후지필름은 29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은염 사진 포토북 '이어앨범'을 국내에 선보인다고 밝혔다. '1년 동안 찍은 사진을 5분 만에 환관의 앨범으로 만든다'는 콘셉트의 온라인 사진 인화 서비스, 독자 사진분석 기술 등을 활용한 다양한 편의 기능으로 손쉽게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메타데이터와 화질, 선명도를 분석해 잘

나온 사진 순서대로 등급화하는 '스마트 셀렉트'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사용자가 우선적으로 넣고 싶은 인물을 선택하면 선별해주는 '스마트 캐스팅'과 별도 선택 없이 우수한 사진을 포토북에 자동적으로 배치해주는 '스마트 레이아웃' 기능도 갖췄다. 빛이나 색바램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고화질 무광 인화지를 사용한 것도 강점. 특히 전통 사진 은염 인화 방식과 양면 타입 제본,

한국후지필름 사진 포토북 '이어앨범' 공개
고화질 무광 인화지·스마트 레이아웃 장점

하드커버 표지를 사용해 고급스럽다.

내달 1일부터 공식 홈페이지(year-album.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3종의 디자인과 7가지 색상, 16~48페이지까지 선택이 가능하다. 가격은 2만 8000원(A5, 16P)부터 최대 9만 5000원(A4, 48P)이다. 한국후지필름은 온라인 주문제작 시스템 외에 유통망인 FDI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김영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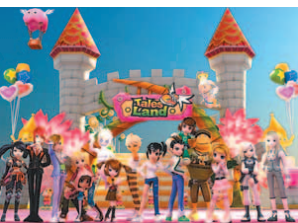
'아키에이지' 중국 공략 준비 순항



엑스엘게임즈는 인기 PC온라인게임 '아키에이지'(사진)의 중국 비공개테스트(OBT)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22일 시작한 이번 테스트는 총 6개 서버에서 약 3달간 진행된다. 현지화와 유료 모델에 대한 전반적 점검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테스트에는 아키에이지의 핵심 콘텐츠도 단계별로 선보인다. 원대륙

콘텐츠와 공정전 시스템을 차례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해상전을 비롯한 여러 해양 콘텐츠도 즐길 수 있다. 비공개테스트 시작 직후 모든 서버에 대기열이 발생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캐주얼게임 '테일즈런너' 스마일게이트 품으로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는 아프리카TV와 라온엔터테인먼트에서 개발한 캐주얼게임 '테일즈런너'

(사진)의 영입양수 계약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게임의 온라인 및 모바일 버전 관련 일체의 사업을 양수한다는 내용이다.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이관해 2015년 상반기부터 자체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겨울 방학 업데이트도 준비 중이다. 테일즈런너는 서비스 9년을 넘긴 인기 장수 콘텐츠로, 다양한 테마를 배경으로 한 온라인 액션 레이스 게임이다.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는 테일즈런너를 '크로스파이어'에 이은 캐주얼 라인업으로 포함시키면서 폭넓은 연령층의 유저들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편입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트위터@simss23

면역력이 강해야 내 몸이 건강하다 | 이지스한의원 조훈범 원장

류마티스관절염 초기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현저히 늘어나면서 자가면역질환 발병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기처럼 누구나 쉽게 걸릴 수 있는 자가면역질환은 예방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 더욱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류마티스관절염은 자가면역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다. 류마티스관절염은 아직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자가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기면서 관절 및 관절 활막에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류마티스관절염은 손가락이나 발가락 등 작은 관절에 통증 및 염증을 유발하는데, 증상이 심해질수록 관절과 혈관 및 폐 등 다른 신체조직에도 염증과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류마티스관절염의 초기증상은 몸이 무거워지는 현상이나 원인 모를 근육통, 잦은 피로감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 등의 관절이 뻣뻣하게 굳는 '조조강직' 현상이 특징이다.

이 외에도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관절변형은 되돌리기 어려운 치명적인 신체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자신의 몸에 나타나는 증상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류마티스관절염의 경우 비가역적 관절손

상, 만성통증, 강직과 기능적 손상을 일으키는 만성염증성질환이기 때문에 단순한 관절 치료가 아닌 몸의 면역력을 정상화시켜야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 특히 초기에 제대로 잡지 않을 경우 주요장기인 폐와 간, 심장 등에 염증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면역체계를 정상화시켜주는 AIR프로그램을 통해 증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

AIR프로그램이란 한의학적 면역치료 방법 중 하나로, 국소부위의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즉각적인 면역체계의 활성화를 돕는 치료프로그램이다. 최상급의 면역분독약품을 사용하여 몸에 장기간 쌓여 있는 체내의 불순물을 제거한다. 몸의 순환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왕뜸치료 등 다양한 한의학 치료방법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무너진 면역체계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지스한의원 조훈범 원장

대구한의대 한의학과 졸업
본초 기미화 회장역임
경락학회 정회원
대한 형상학회 정회원
대한 약침학회 정회원
대한 한방 비만학회 정회원



이유없이 온몸이 쿡쿡...난치성 통증 의심

IT기기 사용 증가로 10~20대 환자 급증
어깨·허리 등 지속적 통증시 진단 필수

직장인 박영수(28·가명)씨는 최근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고교 때 시작된 만성 허리 통증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허리디스크를 의심해 여러 번 검사를 해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견디다 못한 박씨는 다시 병원을 찾았고, 뜻밖에 난치성 통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난치성 통증은 어깨, 허리, 팔꿈치 등 신체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신경 이상이나 수술 후 통증 증후군 등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통증이 매우 심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에는 10~20대 젊은층 환자가 늘고 있다. 실제로 구로예스병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난치성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10~20대 환자가 2012년 72명에서 2013년 119명으로 47명(65.7%) 증가했다. 이는 학업이나 업무 등으로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 운동량이 부족하고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량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IT기기 사용 많아지며 젊은 환자 급증

구로예스병원의 차기용 원장은 "난치성 통증은 다양한 신체 부위에 나타날 수 있는데, IT기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어깨나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며 "환자마다 통증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난치성 통증은 만성 두통을 동반하고 어깨가 항상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또 허리나 뒷목, 팔꿈치나 발바닥 등에 통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스마트폰 등 IT기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난치성 통증 환자가 늘고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허리, 어깨, 팔꿈치, 뒷목 등에 통증이 계속된다면 난치성 통증을 의심해야 한다.

스포츠동아 DB

대부분 통증이 장기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이유 없이 팔다리가 저리고 관절이 쑤시는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척추나 관절 관련 수술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난치성 통증을 의심해야 한다.

초기에 단순 근육통이나 가벼운 디스크 질환이라 생각하고 파스나 찜질 등에 의존하면 치료시기를 놓쳐 통증이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운동부족이나 잘못된 자세로 통증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운동, 바른 자세 유지가 중요하다.

차기용 원장은 "근육통, 관절염, 디스크질환 같은 증상이 있는데 엑스레이나 CT 검사로 원인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기간 원인 없는 통증이 반복되거나 치료 후에도 회복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다시 병원을 찾아 난치성 통증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난치성 통증은 체형 교정 및 근육을 수기로 풀어주는 도수치료나 인대를 강화시키는 주사치료 등 증상에 따른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재혁 기자 ajaplo@donga.com 트위터@ajaplo

도시형 프리미엄 CUV '뉴 푸조 2008' 출시

푸조의 도시형 프리미엄 CUV(Casual Utility Vehicle)인 NEW 푸조 2008(사진)이 29일 공식 출시됐다.

New 푸조 2008은 CUV 차량 특유의 실용성과 높은 연비가 가장 큰 장점이다. 외관 디자인은 세련된 느낌과 균형 잡힌 배분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또 차량 내부에 도어 트래이, 센터 콘솔에 위치한 트래이와 컵 홀더 등 여러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중앙과 센터 콘솔 후면에는 12V 전원 소켓도 마련했다.

실용적인 공간 구성도 돋보인다. 효율적인 공간 확보를 위해 앞좌석 등받이 두께를 얇게 조정했다. 또 차량 내부에 도어 트래이, 센터 콘솔에 위치한 트래이와 컵 홀더 등 여러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중앙과 센터 콘솔 후면에는 12V 전원 소켓도 마련했다.



1194L까지 조정해 사용할 수 있다.

연비도 좋다. 1.6 e-HDi 디젤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 3세대 스톱 앤 스타트 시스템을 장착해 17.4km/L(고속 19.2 km/L, 도심 16.2km/L)의 높은 연비를 실현했다. 1.6 e-HDi 액티브(Active), 알류르(Allure), 펠린(Feline) 3개 트림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각각 2650만원, 2950만원, 3150만원이다(이상 VAT 포함).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serenowon